

“국가장학금 투명하게 개선하고,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비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제안 소확행을 토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과정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것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 청년들도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가 나올 때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면서 “전체 대학생 중 절반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대비 6,62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2020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104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48.2%에 불과하다. 또한 선정 기준이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소득구간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산 인정 세부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및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부모 소득이나 재산인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현재 전화로만 가능한 소득구간 산정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전체 대학생 약 48.2%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30%대에 달하는 현실에서 미진학 청년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대학에 진학하든 하지 않든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미래 준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 청년들도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 문의 : 정책본부 786-2741